

## 현장의 목소리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관선시대에서 민선시대로 넘어온 지 어느덧 17년이 지나면서 민선시대의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2010년 7월 1일 출범한 민선5기에 들어와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에서 재정 위기에 대한 경고등이 켜지고 한파에 몸을 잔뜩 움츠리고 있는 형상이다. 그러나 새봄이 되면서 일선에서는 '재정의 건전성 회복'이라는 새바람을 일으키며 '재정위기'라는 얼음장을 봄 눈 녹듯 서서히 녹일 태세를 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단체장의 판공비를 삭감하는 등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태백시를 방문하여 그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대담 : 박길성 한국행정DB센터 소장 / 정리 : 최혜경

사진 : 김연식 태백시장

##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딛고 내일을 준비하는 김연식 태백시장



태백시는 스포츠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같이 제조+유통+건설+서비스업이 결합되어  
경제적 파급효과 및 고용 유발효과가 높고 미래 성장 잠재력이 큰  
신진국형 제조업을 육성할 계획에 있다.

재정 긴진회를 위해 지구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  
정부는 지원을 이끼지 말고 지켜봐주길...

### 김시장님! 안녕하십니까?

개인적으로 태백은 추억이 많은 곳인데, 다시한번 태백시를 방문하게 되서 영광입니다. 시장님을 뵙기 전에 스마트 폰(Smart Phone)으로 태백의 맛집을 검색해 태백한우를 맛보고 왔습니다. 태백한우는 처음인데, 육질이 부드럽고 맛이 좋던데요. 값도 저렴하구요.

예, 태백한우 먹어보셨군요. 감사합니다. 태백한우가 다른 곳의 한우에 비해 뒤지지 않는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입소문 많이 내주십시오.

### 태백시장에 출마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왜 공무원을 하는지 물어보면, 대개가 천편일률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말을 합니다. 저는 그보다 중요한 것이 애乡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애乡심이 열정이 되는 것이고, 혁신보다는 변화를 통해 진화된 모습을 보이고, 시간이 지나 새로운 모습으로 창조되는 마인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 개혁을 외치는데,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현상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마인드의 변화가 중요하니까요.

### 강원도의 도의원도 역임하셔서 태백시의 발전과 관련해 준비가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이 처음에는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흥망성쇠가 정해졌는데 지금은 사회의 목소리가 다양하고 많아서 소위 정부, 사회, 지역사회를 볼 때 통제 불능 상태인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반대가 많아 말로는 지역발전을 위해 운영한다지만 재정운영도 어렵고,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높아 사업 속도, 경제 발전 속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때때로 중국식 자본주의가 새로운 모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거죠.

### 태백시의 금년도 세출 예산이 약 3,000억 내외로 재정자립도도 비교적 높은 편이더군요.

강원랜드를 통한 기금,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 등이 200억, 지방세만 150억, 세외수입 416억으로 재정자립도가 27.8%입니다. 이는 타 지방의 지자체에 비한다면 별로 낮은 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도 타 지자체에 비해 결코 낮지 않고, 태백시의 지방 채무도 전국 평균이하임에도 불구하고 태백관광개발공사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이 태백시의 재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태백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정부의 태백관광개발공사 청산 명령으로 태백시는 오투리조트의 매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각의 조건에 따라 채무보증액이 시 채무로 승계될 경우 태백시의 채무율은 급격히 상승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선 오투리조트를 좋은 조건으로 매각하고자 역량을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백시의 부채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일반 부채 비율은 19.4%입니다. 타 지자체 비해 비교적 건전한 상태인데, 공기업부채비율이 8.4배 정도 됩니다만 지금 태백시가 그것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인겁니다. 보증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법이니까요. 저희는 부채 비율을 20% 내로 유지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매각 전략과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 계시겠군요.

매각 전략은 오투리조트가 매각 이후 탄탄한 경영으로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현재 강원랜드와 매각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승계채무액이 확정되면 단기간에 채무율이 안정권으로 진입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지방채 조기상환금으로 2012년도에 예산의 10%수준인 202억 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구요. 비효율적인 공유재산의 매각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긴축재정의 기초를 유지하고, 느슨한 행정 체질을 바꾸어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 관공비도 기부하셨대구요.

태백의 민간이전 경비가 연 62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올해 15억 원을 줄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지출입니다. 표를 얻을 수 있는 지출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긴축은 재정 자립도를 높이려는 제 의지였습니다. 그러니 관공비를 그대로 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은 소위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고들 합니다. 올해 태백시는 대외적으로 가장 민감한 언론 홍보, 광고비, 지방 신문사 행사 보조금 모두 대폭 줄였습니다.

### 관련 단체에서 저항이 만만치 않았을텐데요.

예, 맞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단체장으로서 신규 사업을 줄이고, 보조금을 줄인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민간이전 경비는 전체 24%를 줄였습니다.

사람들은 신년에 담배를 끊는다, 다이어트를 한다와 같이 자기와의 약속을 많이 합니다. 저 자신을 비롯해 태백시청 모든 공직자들은 올해는 생각한 것을 실천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태백시의 자구 노력은 주로 재정 긴축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백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중장기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방재정의 부채를 줄여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것은 단기적으로 극복해 나가야할 과제입니다. 긴축 재정 운영은 지역투자가 줄어 주민에게 돌아가는 수혜나 지역경제에 역기능적 측면이 있으나 내부 고정경비를 줄이고, 투자 사업은 규모를 유지시키는 구조로 노력하고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예산 편성도 하였습니다.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적 투자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산업인프라, 사회 인프라



의 확충에 장기적 안목에서 꾸준히 공공투자를 하고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을 위한 산업형 경제 구조로 활성화하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은 도시지만 주민의 소득이 높고 삶의 질이 최고인 도시로서 태백시가 타 지역에 비해 경쟁력있는 산업 복합형 전원휴양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을 목표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태백시는 민선 지방자치제도 출범 이후 전통적으로 관광휴양산업이 주력 산업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 시는 정부의 석탄합리화 정책 이전까지는 전국 최대의 광도로서 인구가 12만이 넘었던 도시였지만 석탄 산업이 사양화되면서 대체산업으로 자연환경을 자원으로 한 관광휴양업을 민선자치 이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투자 유인의 지리적 불리함과 국내외의 경기불황으로 인구는 급격히 줄게 되고 지역 경제는 침체되고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 임기가 시작된 민선 5기에서는 성장잠재력과 소득탄력성이 높은 융복합 신제조업 분야로의 산업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고부가가치

를 창출할 수 있는 선진국형 제조업으로 육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스포츠의 보편화로 인해 스포츠 산업은 미래 성장 잠재력이 큰 유망산업입니다. 제조+유통+건설+서비스업이 결합되어 여타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및 고용 유발효과가 높습니다.

총 554억 원이 투입되는 스포츠산업단지 조성사업은 1차로 2015년까지 391억 원을 투입하여 스포츠용품 연구실험 시설, 지원 시설 등 집적화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미래형 휴양레포츠의 도시, 전국 유일의 스포츠 특구로서의 스포츠 산업 도시로 도약을 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태백시는 신소재를 기반으로 하는 스포츠과학산업단지조성, 강원랜드 이시티 사업 등 미래형 신산업을 육성하고,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운영활성화, 오투리조트의 경영안정 등 체험형 레저 산업을 활성화하며, 우수한 청정 고원지의 자연환경을 자원으로 하는 품격 높은 생태 휴양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높여 재정의 안정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 관광사업 외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는 사업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실 관광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다시 생각해봐야 할 듯합니다. 전국 자치단체들이 그동안 관광 사업 정책을 우선순위로 두었습니다. 여기서 발굴된 것이 축제였죠. 몇 만 명이 모여 지역 효과가 얼마 다 하면서 10여 년을 해보니 전국이 모두 똑같은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스포츠마케팅을 끌어 들입니다. 대회 유치비용이 예전에



는 1억이었는데 지금은 2억4천만 원 정도가 되었더군요.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면 선수들과 스태프, 가족, 관람객들이 모여 들고, 그에 따라 지역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가 화두가 된 거죠.

지금 관광사업 자체는 정책의 후 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관광단지



만 조성해 놓고, 민간이 들어오지 않으면 공공사업비만 날리는 상황이니깐요. 관광 사업비를 줄이고 가장 '태백'스러운 것, 태백에 가야지만 볼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돈을 투자해 시설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는 것이죠. 지역의 특색을 살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여름철에 공기도 맑고 선선하여 많은 여름 스포츠단이 전지훈련을 온다고 들었습니다. 재활치료 전문, 어르신들이 재활치료를 받고,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작년에 스포츠 박람회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스포츠 행사를 유치하니까 태백은 스포츠 특구로서 다른 곳에서 안하는 것을 하지는 생각에서 스포츠 메디컬 센터를 구상했습니다. 이것을 태백에 전문적으로 유치를 해보자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다. 그런데 또 충북 진천에서도 비슷한 것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들리더군요. 사실 실버산업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태백엔 기본 인프라가 안 돼 있어요. 병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업성에서는 떨어집니다.

일자리가 없으니 인구가 줄어드는 겁니다. 일자리를 위해 수도권은 기업을 유치합니다. 수도권에서 가까운 원주, 춘천 등의 이러한 시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태백은 같은 전략을 쓸 수 없습니다. 인접성의 문제 때문이죠. 일자리 창출은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스포츠 산업을 활성화하



는 것을 고민하고 있고, 스포츠산업조합 등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동계올림픽이 평창에서 열립니다. 이를 계기로 강원도에서 스포츠 산업단지 유치에 나섰습니다. 때문에 경쟁이 심화되어 우리 태백시의 사정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민선 이후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자치단체가 사업을 벌이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태백시의 지구 노력은 건축재정외에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은 무엇이 있을까요?


살림살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살림은 돈을 쓰는 사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치경제를 운영하다보면 몇 십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 몇 백만 원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산 조정하라고 하면 또 조정이 됩니다. 돈은 쓰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 규모와 운용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내 돈 쓴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빚을 갚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올해 시유지를 정리하고, 공무원 사무경비도 10% 줄였습니다. 그래도 불만 있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어려운 걸 아니까요. 줄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태백시의 지구노력과 관련해서 중앙정부나 강원도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재정건전화 노력에 대한 태백시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살림도 짜임새있게 하고 있구요. 오투리조트의 매각에 따라 부채의 규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충분히 대비책을 가지고 지역경제에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폐광지역이 자생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나 강원도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재정 위기의 핵심 오투리조트의 매각은 폐광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도록 경영 능력과 자본이 튼실한 기업에서 인수되어야 합니다. 건실한 업체에서 인수가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나 강원도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잘못했을 때 패널티를 적용하더라도 지자체가 제대로 갈 수 있게 정부가 방향을 정해줘야 합니다. 자주성과 책임성을 갖고 지구노력을 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제도로 재정 상황을 단정지어 버리면 노력할 의욕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태백시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백시가 책임있게 재정건전화를 위해 지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지켜봐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산소 도시 청정 태백의 추천 먹거리!

고산지대인 태백은 예로부터 맑은 공기와 높은 하늘로 유명하다. 자연이 맑을수록 맑고 깨끗한 것은 당연지사! 태백의 맛과 풍미를 잠시 즐겨보자.

### 태백 한우



맑은 공기 청정 고원, 태백의 한우는 드넓은 태백의 자연을 닮아 있다. 태백 한우는 고원준령 초원에서 태백산 약포를 먹여 육질이 뛰어나고 드넓은 자연의 넉넉한 품에서 자라 맛 또한 담백하고 부드럽다. 태백에서는 한우 등심만 선별하여 부재료와 함께 버무려 먹기도 하는데, 고기가 연하고 싱싱한 채소의 맛이 과연 태백에서만 맛볼 수 있는 신선함이

있다. 태백 한우를 숯불에 석쇠를 깔고 구워먹는 태백 한우는 관광객들이 제일 먼저 손에 꼽는 태백의 먹거리이다.

### 태백 닭갈비

강원도 하면 의례히 떠올리는 음식이 있다면 단연 닭갈비이다. 닭갈비는 양념이 잘 배어든 닭과 고구마, 양배추, 떡 등을 넣어 볶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태백지역의 닭갈비는 색다르다. 육수를 넉넉히 부은 냄비에 잘 손질된 닭과 고구마, 부추, 떡, 냉이를 넣은 다음 육수를 넉넉히 붓고 양념장을 풀어 자작해지도록 끓인다. 여기에 쫄면, 우동, 라면 같은 사리를 넣어 같이 끓이면 진한 국물과 사리가 어우러져 그 맛이 일품이다. 기름기가 적어 담백한 태백의 닭갈비, 태백에 가게 되면 태백 닭갈비의 진한 맛을 꼭 맛보도록 하자. 진하고 넉넉한 태백인의 인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태백 명소 가이드

### ▶▶▶ 백두대간의 중심, 태백의 진면목을 거닐다

강원도 남쪽 태백산맥의 높은 터에 위치한 고원도시, 태백! 한반도의 등줄기인 백두대간의 중심부에 위치한 태백시는 민족의 영산인 태백산과 생명의 젖줄인 한강·낙동강·오십천이 발원하는 유서 깊은 도시이다.

봄이면 철쭉이, 여름이면 짙은 녹음이, 가을에는 불타는 단풍으로 온 산을 휘감고, 겨울에는 눈꽃과 어우러진 주목(朱木)이 장관을 이룬다. 더욱이 태백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일출은 경이롭기 그지없다. 사계절 청정한 자연 속에서 언제나 깨끗한 파란 하늘을 만날 수 있는 이 곳. 드넓은 고원휴양지 태백의 명소로 떠나보자.



#### 태백산

백두대간의 중추인 태백산은 예로부터 한민족의 시조인 단군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던 영험한 산이다. 태백산은 높되(1,567km) 가파르지 않고 험하지 않으며 남성다운 웅장함과 후덕함을 지닌 토산으로 백두대간의 중추를 이루고 있으며 겨울이 길고 눈이 많이 와 겨울 산으로 알려져 있다. 태백산의 정상에는 여러 종류의 야생화와 산철쭉, 진달래가 어우러지고 산지대에서 자생한 참나무, 취나무 등의 산나물들이 풍부하여 등산객의 발길을 잡곤 한다. 무엇보다 태백산 주목(生千死千-살아천년죽어천년)은 태백산을 아끼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다.

#### 매봉산 고랭지 단지, 바람의 언덕(풍력발전단지)

천의봉이라고도 불리는 매봉산 고랭지 단지는 백두대간에서 낙동정맥이 분기하는 곳에 위치한다. 산 아래에서부터 정상부근까지 끝없이 펼쳐진 40만 평의 고랭지 채소밭과 해발고도가 가장 높은 도시의 하늘과 지하 비람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풍력발전단지는 보는 이의 탄성을 자아낸다. 특히 이곳은 동고서저 지형의 최상부에 위치하고 있어 태백산의 여러 봉우리들을 조망할 수 있으니 태백만의 이색적인 전망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



## 태백 명소 가이드



### 태백체험공원

폐광된 실제 탄광사무소에 재현된 태백현장학습관은 한국의 대표적인 체험 공원이다. 한때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부존 에너지 자원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으나 청정 고급연료에 대한 선호로 사양의 길로 접어든 태백 석탄의 역사와 광부들의 삶을 체험을 통해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 되어 있다.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 석탄 생산에 종사한 광부들의 일상과 그 속에서

도 피어났던 그들의 꿈과 희망을 볼 수 있는 생생한 현장체험 공간이다.

또한 탄광촌의 주거 형태와 생활도구에서부터 탄광촌만의 독특한 문화와 예술, 토속신앙 등이 잘 전시되어 있고, 지하갱도의 붕락을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채굴 작업장도 있다고 하니 석탄박물관도 지나치지 말길 바란다.

### 오투리조트

청정 태백에서 구름 위 하늘 별장으로 불리는 오투리조트는 푸른 숲과 맑은 물소리를 들으며 일상에 찌든 스트레스를 날려 보내기에 충분한 편안한 안식처인 타워콘도이다. 함백산 1,100m 고원의 최고봉에 위치한 빌라콘도는 골프장과 스키장이 모두를 내려다보이는 빼어난 전망을 자랑하며 유럽식 지중해풍 건축양식과 품격 높은 실내 공간을 제공한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꿈과 이상을 만드는



오투리조트는 하늘 아래 첫 만남 유스호스텔을 비롯해 콘도 424실, 골프장 27홀, 스키장 16면을 갖춘 4계절 종합 휴양리조트이다. 창을 열면 태백산과 함백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한눈에 들어오고 수만 본의 적송향과 피톤치드가 밀려오는 오투리조트에서의 휴식은 남다르다.

### 황지 연못

태백시내 중심부에 자리한 황지연못은 낙동강 1,300리의 발원지로 이 못에서 솟아나오는 물은 드넓은 영남평야



로 흐른다. 연못의 둘레가 100m인 상지와 중지, 하지로 구분되며 1일 5,000톤의 물이 용출되고 있다. 이곳은 시주를 요하는 노승에게 시주 대신 두엄을 퍼주어 천지가 진동하면서 집터가 연못으로 변했다는 황부자의 전설이 깃들어 있는 한국명수 100선 중 한 곳이기도 하다.

### 검룡소

한강의 발원지인 검룡소는 둘레 20m에 깊이를 알 수 없는 석회 암반을 뚫고 하루 5천 톤 가량의 지하수가 용출한다고 한다. 솟아나 온 물은 곧바로 20m의 폭포를 이루며 쏟아지는데 이 광경은 그야말로 장관을 이룬다. 오랜 세월 동안 흐른 물줄기로 인해 암반이 구불 구불하게 폭 파여 있는데 그리로 흐르는 물이 흡사 용이 용트림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같은 형상으로 물은 사계절 9℃정도로 유지되고 있으며 암반 주위에는 물이끼가 푸르게 자라고 있어 신비한 모습을 하고 있다. 검룡소에서 솟아나오는 물은 검룡이 내품는 물줄기라 검룡수라고도 한다.



### 용연동굴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용연동굴은 강원도 지방기념물 39호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해발 930m에 위치한 석회동굴로 총 길이 843m에 이른다. 동굴의 꽃인 동굴 산호석과 석순,鐘유석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어 다양한 동굴의 모습을 만끽 할 수 있다. 내부로 들어가면 아름다운 음악과 환상적인 분수 쇼가 연출되는 꽤 널찍한 광장을 만날 수 있는데, 이곳은 임진왜란 때 의병의 본부로 사용하였고 국가변란 시에는 인근주민들의 피난처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한편 주차장에서 동굴 입구까지 1.6km 구간 무궤도 열차 운행하는 용연열차를 타고 주변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동굴 관람도 놓치지 않으시길..

